

일 주 문



티벳대장경역경원 심사사례
진옥 티벳대장경역경원 원장 스님은
11월 14일 문경 봉암사, 법주사, 남장사에서 역경원 심사사례를 진행했다.



'금강산 관광' 주제 월례강좌
지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은
11월 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금강산 관광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월례강좌를 가졌다.



수험생 대상 강연회
현진 청주 마야사 주지 스님은 12월 2~3일 청주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웃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강연한다.



금선사 초청법회 강연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2월 6일 오전10시 서울 금선사 법당에서 열리는 12월 선지식 초청법회에 강사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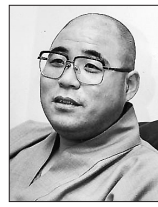
해인동문화, 동명 스님 제18대 회장 추대



해인사승가대학 동문문화 제18대 회장에 서울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해인동문화는 11월 23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동명 스님의 제18대 총동문회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1964년 해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동명 스님은 1975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부안 내소사 주지와 조계종 총회위원,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전등사 주지이자 시민선원 '전등선원' 선원장으로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동명 스님은 "동문스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소망이다"며 "오늘 40여년을 함께해온 동문스님들의 지지로 총동문화장에 선출된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축문화대상 보각 스님·윤영해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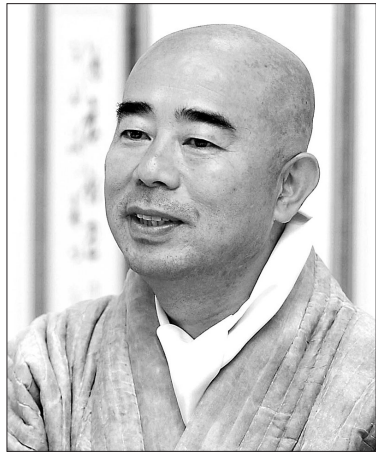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제3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로 학술문화상에 윤영해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평화실천상에 이재공덕회 이사장 보각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



보각 스님은 노인요양시설, 심비요양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을 개원하며 지역복지의 취약점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영해 학장은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보물 제734호,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을 최초로 완벽해 불교인재 양성고 불교학 연구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하성미 기자

“소통으로 종단발전 구심점 역할”

조계종 신임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월정사 퇴우 정념 스님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사찰 및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그동안 종단의 크고 작은일에 중지를 모아 종단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의 임기동안 주지협의회가 종단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해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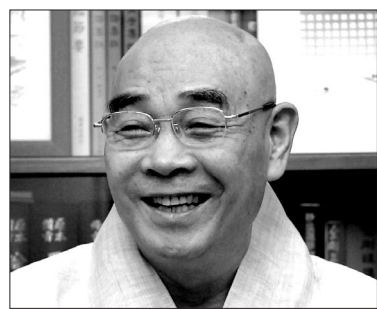
11월 16일 제 42차 회의서 선출 집행부도 함께 구성...소통에 앞장 군법당 자매결연 사업 지속 전개

대한불교 조계종내 24개 교구를 이끄는 교구장 스님들의 협의체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주지협의회) 회장에 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인 퇴우 정념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주지협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제 42차 회의에서 회장인 퇴우 정념 스님의 추천으로 수석부회장에 정목 스님(수덕사 주지), 차석 부회장에 월우 스님(대흥사 주지), 총무에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재무에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을 선임하는 등 집행부 구성도 마쳤다. 임기는 1년이다.

퇴우 정념 스님은 “그동안 주지협의회를 이끌어주신 전임 집행부 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화합 속에서 주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어느 모임이든지 마친가지이지만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지협의회는 구속력이 강한 모임은 아니지만 조계종 교구 본사 수장들이 모인 만큼 한국불교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의된 내용들이 때로는 종단의 총무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때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신중히 논의하고 소통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해 앞장 서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피력했다. 정념 스님은 최근 주지협의회가 24개 군부대 군법당과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협력을 약속한 사업에도 큰 관심을 피력했다. “제가 주지로 있는 월정사도 원주에 위치한 1군사령부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3교구인 속초 신홍사는 8군단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협약 맺은 모든 교구본사들은 군법당 불사를 비롯해 군장병 위문 및 군악대 지원 등에 힘쓸 것입니다. 군포교는 포교의 황금어장임에도 타종교에 비해 우리 불교의 열악한 포교 환경을 항상 안타까워했는데 이번엔 교구본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 포교 등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 활성화시키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주일 기자 kim4217@hyunbul.com

“화엄경 80만자 새긴 화엄각 건립할 터”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 맞아 헤거 스님



탄허 스님의 유품과 저서, 역서를 전시하고 불자들의 공부와 연구를 위한 시설로 세워진 탄허기념박물관이 개관 5주년을 맞이했다. 탄허기념박물관장 헤거 스님(사진)은 11월 21일 서울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열린 개관 5주년 법회에서 “탄허 스님의 화엄경 번역을 기념하는 화엄경 80만자를 새긴 화엄각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헤거 스님은 “탄허기념박물관 개관과 함께 시작된 금강경 강송대회를 가톨릭, 개신교 등 각 종교가 함께 각자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종교문화 축제로 전환했으면

한다”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금강경을 외우는 대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김홍태 성우회장,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 김현기 서울시의원 등 5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기념법회는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삼지 스님(대전 자광사 주지)의 개회사, 서상윤 금강선원 신도회장의 탄허기념박물관 5주년 경과보고, 배태숙 만일수행결사회장의 만일수행결사 경과보고, 이원형 금강선원 신도회 교문의 탄허대종사 행사 소개와 내빈 축사, 헤거스님 인사말, 금강선원 가가

합창단의 축하 등으로 진행됐다. 점심공양 후 금강경강송대회 역대 수상자와 참석대중이 함께 하는 금강경 합송에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동희스님의 집전으로 수록대제가 봉행됐다. 전통순당의례로 시작된 수록대제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동체대비심으로 보호하고 그 영혼까지 천도하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위덕대, 日후쿠오카대와 교류협정

위덕대(총장 홍욱헌)는 11월 23일 위덕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후쿠오카현립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후쿠오카현립대학은 1945년에 후쿠오카현립 보건대학으로 설립, 1991년에 4년제 후쿠오카현립대학으로 변경하여 특히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등이 특화된 학교이다. 위덕대 홍욱헌 총장은 환영사에서 “일본

후쿠오카현립대학과는 상당히 유사한 학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대학간 협력의 폭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상호 우호증진을 통한 학문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활발한 학생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후쿠오카현립대학 시바타 총장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21세기 사회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인성이 강화된 자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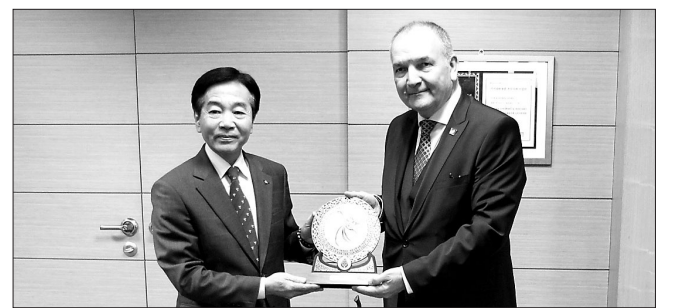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단기, 장기 교환유학생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미륵종 승정 스님 2주기 추모제



한국불교미륵종은 11월 18일 미륵종 총본산 김해 관음정사에서 前 총무원장 만암당 승정 스님의 열반 2주기 추모제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산 금강사 회주 혜성 스님, 선운사 조실 법현 스님, 복천사 회주 해문 스님 등과 200여 대중에 참석했다. 추모제 봉행위원장 묘각 스님(미륵종 총무원장)은 “2년 전 열반하신 승정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미륵종단을 훌륭한 종단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스탄불 문화국장 초청 특강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아시아연구원은 11월 23일 터키 이스탄불시청 문화국장 압둘라만 센(Abdurrahman Sen)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현 국장은 ‘실크로드 서쪽과 동쪽 끝의 우정과 새로운 만남’의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랜 친구인 한국과 터키, 이스탄불과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폭넓은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압둘라만은 “양 기관의 만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원각사, 소외계층에게 장학금 전달



서울 남현동 원각사(주지 연호)는 11월 26일 남현주민센터를 방문해 이희창 남현시장에게 지역의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에 써달라며 1백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원각사의 나눔 실천에 대해 주지 연호 스님은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가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훗날 사회에 진출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세계에서 짐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한의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경대학.

2 학교소개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팩스 : 86-25-84028479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팩스 : (02)511-2028
http://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짐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